

신동기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으로 세상보기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보다 자(字)인데 백으로 더 널리 알려진 이백의 시풍은 한마디로 '정신의 자유'이다.

정신의 자유 추구한 이백

흐드러진 달빛과 처연한 꽃잎 아래 한 병의 술을 놓고 달과 그림자 벗 삼아 혼자 노래하고 춤추면서 시공은 물론 정감까지

지 막힘없는 영원을 꿈꾸는 시인은 정녕 신선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인간사, 인간의 심리 및 자연사에서 찾은 새로운 감동을 엄격한 형식과 성숙된 기교로 표현코자 했던 두보는 시작 완벽을 추구한 위대한 인간이었다.

그런 두보였던 만큼 문학사에서는 시적 표현에 있어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는 의미로 그를 시성(詩聖)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백의 무한대의 '정신적 자유'와 두보의 완벽을 향한 '성실과 노력'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이백은 아버지가 상인이었다. 그리고 본인은 젊어서 도교에 심취해 산중에서 지낸 적이 많았다.

이백과 두보는 살아 있다(2)

자인 두에(222-284)를 조상으로 두었고, 가까이로는 당나라 초기 시인인 두심언(648?-708)을 조부로 두었다.

글을 가까이 하는 집안이었던 만큼 두보는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지었고, 이런 배경은 자연스레 문학적 완벽을 추구하는 '성실과 노력'으로 연결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배경 말고 두 사람의 시풍 차이를 가져온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중국 대륙은 진령(秦嶺)산맥과 회수(淮水)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그 특성을 구분한다. 바로 황하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과 양자강(장강)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이다.

성실과 노력의 전형 두보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과 북이 토양과 기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남방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낭만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데 반해 북방은 소박하고 실재를 중시하는 성격을 지닌다.

공자(BC551-BC479)는 춘추시대 노나라(지금의 산둥성)에서 태어났다. 북방문화의 중심인 황하의 하류지역을 배경으로 한 만큼 유가의 중심사상은 현실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인(仁), 곧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극기복례(克己復禮)이다.

인문경영 작가&강사·경영학박사

※출처: 신동기 저 '오래된 책들의 생각' (2017, 아틀라스북스)

사설

의대 유치 '헛심' 만 쓴 목표·순천시

그동안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이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전을 벌이던 의대 유치가 무산됐다. 정부와 민주당이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에 설립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남원에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를 세우기로 했다. 공공의대는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종사 인력 양성을 맡게 된다.

공공의료를 체험토록 해 지역의료와 필수요리를 견인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의과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동안 의대설립을 추진해온 목포시와 순천시로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의대 유치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등을 펼치는 등 유치전에 전력을 다 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남 내부의 소모적 경쟁이 의대 유치는 커녕 양지역에 서로 아픈 상처만 남기게 됐다"고 지적한다.

다시 이완돼 가는 안전 불감증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선박안전 기준은 물론이고 선원 교육, 안전관리 체계 등이 보강됐다.

하지만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 했던 분위기가 최근 조금씩 퇴색돼 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이다. 해수부 소속 감독관들이 전국의 지방 해양수산청에 파견돼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는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결함이 적발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연안여객선은 20척에 달한다. 안전 불감증의 현 주소를 할 수 있다.

승객들의 의식도 여전히 문제다. 선사를 비롯한 해운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을 들으면 고개가 가우뚱해진다. 배표를 팔 때와 배를 탈 때 2차례 내는 승객들의 신분증 검사에 짜증을 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 이전과 비교할 때 안전 시스템이나 의식이 많이 향상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 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기고



이혁

강진경찰서장 총경

신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

새 학기 학교폭력 근절부터

력, 따돌림 및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정, 학교 및 사회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과 관심의 부족함 가정환경에서 자랐거나 자녀가 공격 행동을 했을 때 방만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문화적 요인도 학교폭력과 밀접

한 연관이 있다. TV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폭력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폭력을 모방하고 싶은 경향이 생긴다.

학교나 친구도 학교폭력의 한 위험요인이다. 특히, 가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원만하지 않은 친구 관계로 친구나 교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의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감지 후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다.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인성을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있을 지도 모르기에 누구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알게 되면 바로 학교전담경찰관 및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고 있으며, 피해학생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범죄 없는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본다.

총장 나일환

기자수첩

'배달 유료화' 합당한 근거 제시해야

교촌치킨이 치킨배달가격 유료화 검토에 나서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배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유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가격인상을 위한 핑계로 따옴없다면 반발하고 있다.

교촌치킨의 이런 움직임에 치킨업체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결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교촌치킨에서 음식을 배달료 2,000원이 부과된다.

교촌치킨은 배달유료화에 대해 그동안 지속된 배달 인력난과 배달 서비스 운용비용의 상승에 대한 가맹점주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나라 경제부 기자

됐기 때문에 배달료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거다. 더군다나 광주외의 경우 30분 이면 어디든 갈 수 있기에 배달유료화는 지역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배달유료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매장에 방문 포장은 고객에게 할인하는 등의 이벤트를 벌이는 등의 자극책도 있는데 배달유료화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달료 유료화 등 가격인상에 앞서 프랜차이즈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공감을 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침을 여는 시

봄날에 쓴 편지

백옥처럼 하얀 미소 머금은 춘사월 이야기는 봄바람 타고 사랑을 말한다.

'사랑이 하나인 것을 세상은 알까? 우리, 하나라는 이야기는 봄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꽃피우는데..'

익어가는 사랑의 뒤안길을 바라보며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근데 말이야, 봄비는 여린 꽃망울 터트리고 바람은 살랑 살랑 꽃비 내려 그리움 가득한 봄을 잉태하니 사랑은 다 그런가봐'

<사색의 창> 산야에 봄 꽃 가득 만발하여 봄이 익어갈 즈음,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부르르 몸을 떠는 봄꽃들은 아픔을 달래려 지나간 시간을 견뎌 오는데 또 다시 바람 불어 꽃피로 봄을 마감시키고자 하는 모양새가 어찌 인생사나 똑같은지 세상사 모두가 다 그러하나다. 좀 더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들, 시샘에 견디지 못한 봄은 우리 곁에서 서성이다 떠나려 하고 잠시 마음속 깊이 품었던 봄 향기는 코끝에 맴 돌다 심장 깊숙이 아쉬움만 남기며 후일을 기약한다.

/한국 사이버문학인협회 회장·시인 나일환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발행·편집인: 崔永基, 사무이사 겸 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유머@세상. <뭘가 들었기에> 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와서 맥주 한 잔을 시켰고, 술이 나오자 그는 술을 마시면서 셔츠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남자는 한 잔을 다 마시고 또 한 잔을 시켰고, 계속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면서 술을 마셨다. 남자가 술을 또 시키자... 술집 주인이 궁금해서 물었다. "근데 왜 자주 주머니를 들여다보는 거요?"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